

# ‘실증적 경계인(境界人)으로서의 작가’ 연구

-작가 허련순과 작품을 중심으로 -

2015급 중한비교문학 석사연구생 김미란

## 1. 들어가면서

경계인(境界人)이란 오랫동안 소속됐던 집단을 떠나 다른 집단으로 옮겼을 때, 원래 집단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금방 버릴 수 없고, 새로운 집단에도 충분히 적응되지 않아서 어정쩡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은 나치즘을 등지고 미국으로 향한 쿠르트 레빈(K. Lewin, 1890~1947)이 사용한 심리학 용어이다.

한국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60년 발표된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서 주인공 이명준이 경계인으로 묘사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2003년 송두율 교수사건 이후 다시 이 용어가 회자되었는데, 윈스터대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재독 사회학자인 송두율 교수는 자신의 저서 <경계인의 사색>에서 자신을 ‘경계의 이쪽에도, 저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계선 위에 서서 상생의 길을 찾아 여전히 헤매고 있는 존재, 경계인’으로 규정했다.<sup>1)</sup>

반면 중국에서는 ‘과계민족’(跨界民族)이란 용어가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하나의 민족이면서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에 걸쳐 거주하는 민족을 지칭한다. 이러한 과계민족은 국제정치 및 각국의 국내정치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여러 나라에 분포, 거주하는 과계민족은 같은 민족으로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언어, 민족감정, 문화특징, 종교 신앙, 지연(地緣) 및 역사적인 연원 등에 기인하여, 국경을 넘어서 정치, 경제, 문화(종교 포함)상으로 서로 영향을 받으며 또한 국경의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sup>2)</sup>

중국 조선족은 이러한 경계인 또는 과계민족의 특징을 매우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한국과 수교를 맺게 되면서 두 나라간의 왕래가 점차 많아지고 또 수월해지면서 이러한 특징은 더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이 경계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던 중국 조선족들은 모국인 한국에 빠르게 동화되고 그 과정에서 다시 경계인의 아픔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예리하게 접근하여 문제의식을 작품으로 창작해내는 대표적인 작가가 허련순이다. 작가들이 작품을 구상하고 묘사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상력과 추리력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들을 통해 창작의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는 이 작가의 실존적인 삶의 경험과 시각으로 디아스포라의 경계인들의 삶을 실증적인 소설로 드러내는 작가의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실증적 경계인 허련순

### 2.1. 실증적 경계인

본고에서 사용되는 ‘실증적’이라는 용어는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실증주의(positivism, 實證主義)는 19세기 후반 서유럽에서 나타난 철학적 경향으로 형이상학적 사변

1) 박문각출판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4.

2) 《중국 소수민족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7. 6. 30.

을 배격하고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강조하였다.<sup>3)</sup> 연구 대상인 작가 허련순의 경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작품에 투영하는 것을 ‘실증적’이라고 지칭하려 한다. 왜냐하면 작가 자신이 실제로 한국에서의 경계인의 존재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작품 속에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독자들은 쉽게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용어로 허련순 작가를 표현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가 자신이 한국에 가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소설에 묘사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녀의 작품 속에서 묘사되는 상황설명과 묘사는 경험하지 않고는 풀어낼 수 없는 리얼리티가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

중국 조선족들은 같은 민족이 있는 고향을 찾아 한국으로 가지만 한국의 주류에서 머뭇거리야 하는 주변인으로서 그리고 중국 국적을 가진 또 다른 정체성으로 혼란의 모습을 갖고 있다. 물론 작가 자신도 한국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수없이 겪어냈을 것이고 그러한 경험이 실증적으로 소설의 구조 속에 자리 잡고 있다.

## 2.2. 허련순 작품속의 ‘경계인 의식’

‘경계인 의식’은 거주국에서 원래 주민들과의 관계성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한 가지 형태라면 또 하나는 거주국과 모국에서의 중간적 실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경우를 언급한다. 연구 대상인 허련순 작가의 몇 작품을 통해 그러한 경계인 의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허련순은 현재 조선족 문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성 작가 중의 하나이다. 허련순의 장편 소설 작품 활동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다. 그녀의 작품은 주로 ‘페미니즘’과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주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즉, 상실한 고향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고향 찾기의 이동을 다루기 시작했다.<sup>4)</sup>

이 연구에서는 실증적 관찰과 경험에 근거한 ‘경계인 의식’이라는 시각으로 작품 분석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녀의 대표작인 《바람꽃》과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에서는 이런 의식이 강하게 묘사되어 전체적인 스토리 전개를 해 나가고 있다.

《바람꽃》은 주인공 홍지하가 고향을 한 번만 보고 죽어도 원이 없겠다던 아버지의 소원을 풀기 위해 아버지의 유골함을 들고 한국에 오면서 시작한다. 이 소설은 조선족 주인공 홍지하를 통해 조선족이 자본주의의 땅 한국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체험과 조선족의 비참한 삶과 주변부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생존경쟁에 내몰린 조선족의 현실과 한국으로의 입국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조선족의 욕망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조선족은 한국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고향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했던 조선족들은 한국체험을 통해 자신들이 꿈꿔왔던 고향이 아버지의 고향 일 뿐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둘째, 현재 겪고 있는 혼란과 불안 등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 또는 한국인에게 전가하려 한다. 셋째,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조선족들은 자신들을 자본주의 체제에 맞는 인간으로 재편한다<sup>5)</sup>. 이상의 정체성은 경계인으로서의 혼란이

3) 실증주의는 일반적으로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변(思辨)을 배격하고 관찰이나 실험 등으로 검증 가능한 지식만을 인정하는 인식론적 방법론적 태도로 폭넓게 나타난다. 하지만 고유한 의미에서는 19세기 후반 콩트(Auguste Comte, 1798~1857)를 중심으로 서유럽에서 나타난 철학의 한 경향을 가리킨다.

4) 박경춘, <허련순의 소설을 통해 본 중국 조선족들의 존재 양상과 ‘디아스포라’ 정체성-《바람꽃》과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는가》를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19.

5) 강진구, <모국 체험이 조선족 정체성에 미친 영향 연구 - 허련순의 《바람꽃》을 중심으로>, 다문화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상황들을 적절하게 묘사했다.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에서는 조선족 주인공은 중국에서 겪은 경험을 통하여 중국이 자신의 모국이 아니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한다. 즉 중국에서의 그들의 삶은 주변인으로서의 삶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소설 속 인물들은 한국에 가면 더 나은 생활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지만 그들은 밀항선에서 질식사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

두 작품에 나타난 조선족이 중국과 한국에서 주변화되는 양상은 물론, 그들 중국 조선족 내면세계의 복잡한 모순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작가 허련순은 중국 조선족 인물을 묘사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의한 단순한 재현뿐만 아니라 조선족의 정체성 혼란과 주변화 현상, 그리고 주변화를 통해 확인되는 자아 정체성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sup>6)</sup> 또한 작가는 두 작품을 통하여 중국 조선족들이 경계인으로서 어떠한 길을 가야하는지 암시하고 있다.

김호웅은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에 대해 비평하는 글에서 ‘이중적 아이덴티티의 갈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중국 조선족 문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되찾아냄으로써 앞으로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7)</sup> 이는 경계인으로서의 자각이 한국이라는 근본적인 정체성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실증되고 있음을 말하고 증명하고 있다.

허련순의 소설과는 다르게 전기인 《사랑주의》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다. 김진경 과기대 총장의 삶을 그려낸 이 책은 단지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것만은 아니다. 이 작품에서도 그녀의 경계인적인 의식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 중국 조선족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김진경 총장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재미교포인 김 총장의 일대기속에서 중국조선족들의 중간인 그리고 경계인으로서의 인물과 동일시하려는 의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전기를 쓰기 위해 매우 오랫동안 끈질기게 당사자를 설득했다는 후일담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 그리고 같은 한민족으로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의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으나 서로 모국을 떠나 사는 인물들이 경계인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는 성공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 또한 경계인 의식을 은연중에 언급하려는 것은 아닐까한다.

### 2.3. 실증적 경계인 그리고 작가

제3자의 입장에서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것과 자신이 처해있는 동일한 상황의 인물과 사건을 모티브로 작품을 쓰는 작가들의 의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작품의 내용에 함께 내재된 작가의 의식은 동질의 상황에서 실증적 공감대를 갖게 될 것이다.

허련순 작가는 디아스포라의 현장에서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과 살아왔다. 또한 모국 그 현장에서 정체성의 혼란으로 부터 비롯된 경계인으로서의 삶도 살았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감정이입의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는 작가의 능력이 될 수 있다. 결국 그녀는 작품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작가의 시각으로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문제들을 고발하고 있다. 즉, 실증적 경계인 그 당사자로서 글을 써내려간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역사가 만들어낸 이러한 쉽지 않은 상황들을 작가 자신도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

콘텐츠 저널, 1999.

6) 전가훈, <허련순 소설의 주변부 의식에 대한 연구 - 《바람꽃》과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초록.

7) 김호웅, 《디아스포라의 시학》, 연변인민출판사, 2014, p.355.

## 1. 나아가며

디아스포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주변인, 중간인 또는 경계인과 같은 용어로 정의 내리기도 한다. 이것은 모국과 거주국 아니면 거주국 내에서 원래의 주민들 간에 나타나는 의식적 현상이며 생활 속에서 다양한 상황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고 또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일종의 아픔과 갈등을 소설 속에서 실증적으로 그려낸 허련순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몇 작품들을 살펴본 결과, 특징하게 단정 지을 수 없이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작품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작가의 주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현실을 드러내면서 경계인이라는 삶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중국 조선족의 미래는 또 다른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연구 의도는 허련순 작가가 실제 한국에서의 생활 경험을 통해 창작해 내는 작품들 속에서 이러한 경계인들의 상황과 의식이 실증적으로 표현되고 묘사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책상에서 구상한 상상력의 나열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의 경계인의 의식을 가지고 실증적인 작품을 써내려간 작가의식 즉 ‘실증적 경계인 의식’이 있는 작가에 대한 노력을 다시한 번 되짚어보려는 것이다.

“나는 귀추 없이 떠돌아다니는 바람꽃! 바람이 불어 왔던 곳과 바람이 자는 그곳 두 세계 중 어느 한 곳에 머무르거나 또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한 채 두 곳을 끊임없이 우왕좌왕했었다.” 이것은 소설 《바람꽃》의 한 구절이다. 이것은 허련순 작가의 실증적 경험을 통해 깨달은 모든 경계인들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 [1] 김호웅, 《디아스포라의 시학》, 연변인민출판사, 2014.
- [2] 허련순,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온북스, 2007.
- [3] 허련순, 《사랑주의》, 흥성사, 2012.
- [4] 전가흔, <허련순 소설의 주변부 의식에 대한 연구 - 《바람꽃》과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5] 박경춘, <허련순의 소설을 통해 본 중국 조선족들의 존재 양상과 ‘디아스포라’ 정체성-《바람꽃》과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는가》를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6] 박문각출판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4.
- [7] 《중국 소수민족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7. 6. 30.
- [8] 강진구, <모국 체험이 조선족 정체성에 미친 영향 연구 - 허련순의 《바람꽃》을 중심으로>, 다문화 콘텐츠 저널, 1999.